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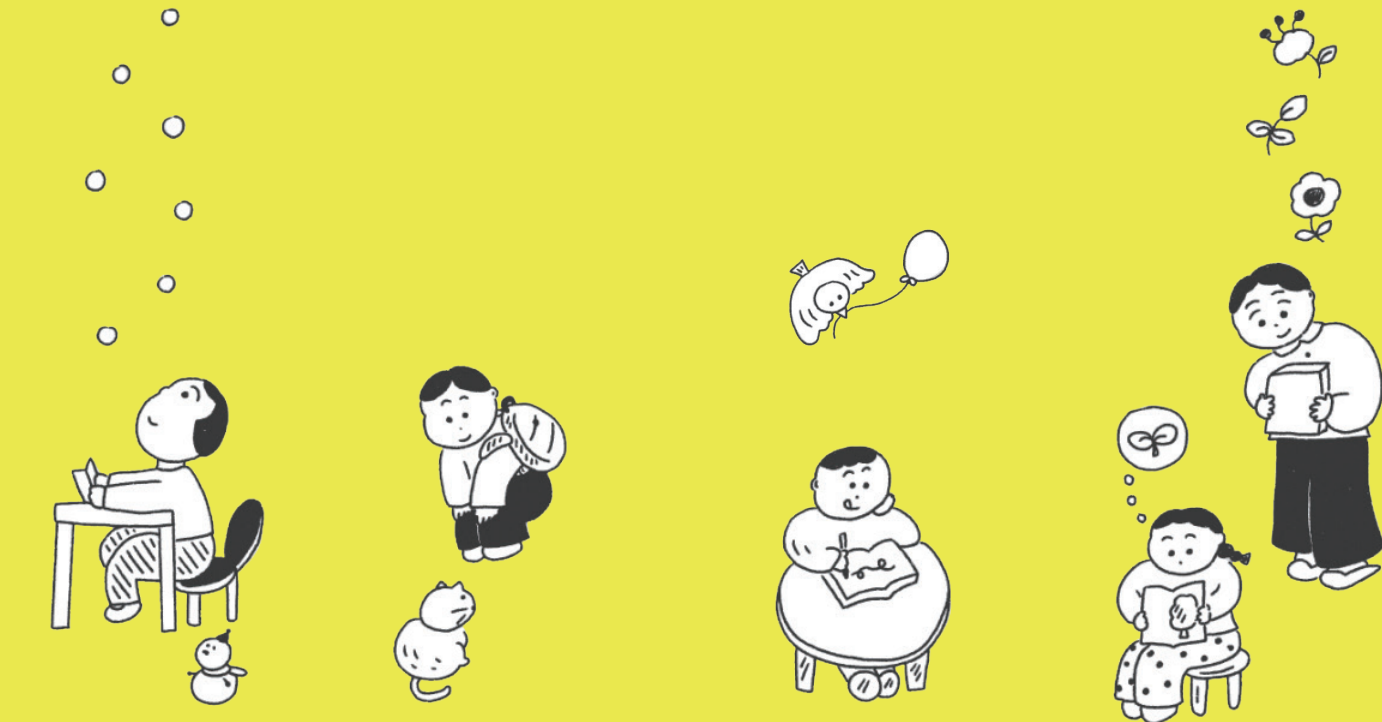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어린이라는 찬란한 세계

그날 현성이와 읽은 책은 『시간이 흐르면』이었다. 운곽이 뚜렷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시간이 흐르면’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낸 그림책이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시간이 흐르면,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그리고 이어서 신발 끈을 묶는 어린이 모습이 등장한다.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라는 문장과 함께. 어쩐지 몽클해져서 현성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신발 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 『어린이라는 세계』



WRITER



안보윤 소설가 『어떤 진심』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

내게는 네 명의 조카가 있다. 그 말은 이모로서 노동량이 남들의 네 배쯤 된다는 소리다. 여름과 겨울은 내게 특히 혹독한 계절이었는데, 조카들이 일제히 방학을 맞이하는 데다가 가족 단위의 휴가가 예정되어 있는 탓이었다. 나는 조카들 손을 잡고 야외수영장 미끄럼틀 계단을 끝없이 오르내리거나 눈썰매장에서 험기증이 날 때까지 썰매를 타야 했다. 조카들은 거침없이 뛰어다니고 좀처럼 지치지 않았다. 저건 다 건강한 간 덕분이겠지. 나는 조카들의 체력 회복 속도를 부러워하며 수영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조카들이 탄 보트나 튜브를 끌곤 했다. 어느 여름, 큰맘 먹고 준비한 홍학 튜브가 너무 높고 거대해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초등학생 조카들은 마음껏 그것에 올라탔다 뛰어내릴 수 있었다. 문제는 아직 유치원생인 넷째 조카였다. 넷째는 좀처럼 튜브에 오르지 못했다. 홍학 목에 매달려 대롱거리거나 몸통에 가까스로 한쪽 다리를 걸쳤다가 물속으로 고꾸라졌다. 어른들은 구멍조끼 덕에 얼굴만 수면 위로 솟아있는 넷째를 안아다 튜브에 앉혔다. 이후 나는 넷째의 전담 안전요원이 되었다. 물놀이 내내 넷째를 지켜보다 그 애가 홍학 근처로 가면 겁싸게 잡아 위로 올려주었다. 넷째는 그때마다 뭔가 불통한 얼굴로 버둥거렸다. 누나 형들만큼 크지 않은 키가 속상해서겠거니 생각하며 나는 허리가 지끈덜 때까지 넷째를 안아 올렸다. 점심을 먹을 때 넷째는 내 귀에 나팔 모양으로 손을 모아 가져다 댔다. “혼자 할래요.” 넷째는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저도 튜브, 혼자 탈 수 있어요.” 충분히 쉬고 난 뒤 넷째는 곧장 튜브에 기어오르기 시작

했다. 물속으로 서너 번 나동그라졌고 튜브가 뒤집힐 뻔했으나 이마까지 새빨개진 넷째는 기어오르고, 혼자 힘으로 튜브에 올랐다. 그러고는 누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구리처럼 펄쩍 솟구쳐 물로 뛰어 들었다. 커다란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러니까 넷째는 그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혼자 힘으로 기어올라 힘차게 뛰어내리는 것. 김소영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는 동안 나는 내내 조카들을 떠올렸다. 작고 보드라운 손바닥과 그것보다 더 보드라운 숨을 가졌던 조카들의 어린 시절을 말이다. 나는 그 아이들이 너무 작고 꼭신해 늘 걱정이었다. 땀에 젖은 이마나 혼곤히 잠들어 벌어진 입술, 작고 느리게 꼬물대는 손가락 같은 것들이 영 미덥지 못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밥을 떠먹이고 입가를 닦아주고 단추를 대신 채워주었을 것이다. 조금씩 방향을 바꿔 도전하는 어린이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한 채 냉큼 넷째 조카를 잡아 튜브 위로 올려버렸던 것처럼 말이다. 김소영 작가는 이런 것들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린이가 어른의 반만 하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다. 하지만 어떤 어른들은 그 사실을 깜빡하는 것 같다.” 작가는 어느 서점 주인이 책을 꼭 끌어안고 선 어린이 손님에게 “따로 포장해드릴까요?” 묻는 장면이 인상 깊었노라고 이야기한다. 서점 주인의 질문과 태도가 얼마나 정중하고 품위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작가 자신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역시 신중하고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작가는 비를 맞는 어린이에게 대뜸

우산을 씌워주며 ‘너 집이 어디니?’ 하고 묻는 대신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도 좋을지를 먼저 묻는다. 끈으로 묶는 운동화를 처음 신고 온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해줄게’라며 휘리릭 끈을 묶어버리는 대신 어린이 혼자 양쪽 신발 끈을 다 묶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준다. 끝내 풀려버린 끈을 대신 묶어줄 때는 어린이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빨리 묶어버리지 않으려 애쓰기도 한다. 아이가 노력한 시간이 헛수고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 보면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 대해서도 새로이 감각하게 된다. 어른스러움은 결국 기다려주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방 속도에 맞춰 충분히 기다려주는 배려심, 상대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재촉하지 않는 인내심,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 배어 태도와 말로 발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는 것 아닐까. 그러므로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확실한 건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 속을 살고 있을까. 또 우리의 세계는 얼마나 넓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느 여름날 조카가 만들어냈던 물보라가 떠오른다. 작은 몸이 만들어낸 커다랗고 선명한 물보라, 그것이 얼마나 거센 파동을 그리며 수영장 끝까지 퍼져나갔는지 그 힘찬 즐거움에 대해 자꾸만 생각해보게 된다. 어린이라는 그 찬란한 세계에 대해서 말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